One pick UP & DOWN

김희재

“계약 무효” vs “출연료 반환하라” 김희재-공연기획사 ‘진흙탕 싸움’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전국투어를 앞두고 공연기획사 측과 연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계약금을 줬다” “안줬다”로 시작한 갈등은 급기야 공연기획사 측이 김희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으로 다투게 됐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이 예정됐던 콘서트는 결국 불발됐고, 피해는 결국 팬들에게로 돌아갔다.

앞서 김희재는 7월 9·1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8월 창원을 돌며 전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과 공연기획사인 모코 이엔티(ENT)가 팬 콘서트와 전국투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모코 이엔티가 티켓 오픈 때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분 공연 출연료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달리 모코 이엔티는 소속사와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박과 재반박을 연이어 하면서 결국 공연기획사 측이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모코 이엔티 법률대리를 맡은 케이엘파트너스는 “김희재와 강모 씨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희재의 일부 팬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놀면 뭐하니?’ 여성 보컬그룹 WSG워너비 화제의 두 인물 박진주 & 엄지윤

“가수 데뷔? 꿈만 같아요!” 배우 박진주(34)와 개그우먼 엄지윤(26)은 요즘 “새 삶을 사는 기분”이다. 5월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여성 보컬그룹 WSG워너비 멤버가 된 이후 일상이 달라졌다. 12명의 멤버와 연습실에서 동고동락하며 “인생 첫 그룹 활동”의 묘미를 맛보고 있다. 9일 세 유닛으로 나눠 발매한 데뷔곡 ‘그때 그 순간 그대로’(그그그), ‘보고싶었어’, ‘클링클링’이 음원차트를 휩싸는 “영광의 순간”도 생생하게 목격했다. 21일 콘서트 무대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연기와 코미디 무대에만 집중해온 이들에게는 “온통 신기한 경험”들 뿐이다. 14일 서면으로 만난 박진주와 엄지윤은 “변화들이 그저 신기하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가수 데뷔 얼떨떨하죠” “장충 콘서트 긴장백배”

‘노래 잘하는 배우’ 박진주

가수의 삶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 후회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

박진주

박진주는 앞서도 ‘노래 잘하는 배우’로 꼽혀왔다. ‘복면가왕’ 등 경연프로그램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진주’에서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해 수차례 화제에 올랐다. 고음과 청아한 목소리가 장점이다. 정작 그는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펼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얼떨결에 응시한 블라인드 오디션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WSG워너비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음악방송과 콘서트 무대를 앞두고 있네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줄은 몰라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새로운 환경 앞에서 정신이 없기도 해요. 좋은 무대를 보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일단 뛰자!’하며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11년 영화 ‘써니’로 데뷔한 이후 “몸과 마음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조현아, 코타, 윤은혜와 유닛 오아시소로 활동하며 “원 없이 춤추고 노래하며 젊음을 불태우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여 짧은 시간 동안 한 팀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2명 모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힘듦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해요. 멤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축이라 동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서울예대 선배인 ‘유팔봉’ 유재석 선배가 방송이 끝나면 매번 전화를 걸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더욱 힘이 나요.”

잠시나마 살아보고 있는 “가수”의 삶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후회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제 목소리가 담긴 음원이 나올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니 조금은 서툴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시청자들이 보내준 사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유튜브 스타’ 엄지윤

웃기는 것보다 노래 잘하고 싶어 활동에 진심, 도전 응원해주세요

엄지윤

엄지윤은 ‘유튜브 스타’로 통한다. 2018년 KBS 공개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지난해부터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코미디 유튜브 채널 ‘숏박스’에 출연하며 온라인을 무대로 삼아왔다. 그러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방송가로 활동 보폭을 넓혔다.

“가수로서뿐 아니라 이렇게 주목 받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처음엔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점점 책임감도 커지고 있어요.”

노래 ‘보고싶었어’를 함께 부른 유닛 사파이어(4FIRE)의 멤버 나비, 권진아, 쏠(SOLE)과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가 됐다.

“가수는 역시 가수예요. 옆에서 팀원들이 그냥 흥얼거리기만 해도 음색이 정말 좋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다들 실력이 지나치게 좋아서 제 실수가 부각될까봐 조마조마할 정도죠. ‘맏언니’ 나비 언니를 비롯해 모두와 회식도 자주 하고, 단체 문자메시지로 쉼 없이 수다를 떨어요. 유닛 중 가장 팀워크가 좋은 팀이라 믿어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겸손해하지만, 숨겨진 가창 실력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주인공이다. 웃기고 싶은 본능을 감추고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웃기고 싶다는 생각보다 ‘노래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가수 활동이 처음이니 팀에 절대 누가 되지 말자는 각오가 남다르죠.”

21일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앞두고 “긴장백배”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들을 믿고 의연하게 공연을 펼칠 생각이다.

“WSG워너비 활동에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비록 잠시이지만 가수로서 데뷔하고 활동해가는 모습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도전하는 용기를 응원해주세요!”

‘BTS 찐팬’ 코엘료 “아미들과 협업하고 싶어”

〈베스트셀러 작가〉

BTS 학술대회 특별 대담 영상 참여

“BTS 음악과 춤은 마치 세상의 악한 존재를 내쫓는 것 같다.”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평소 ‘아미’로 유명하다. 글로벌 방탄소년단(BTS)의 ‘찐팬’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 자신의 책에 사인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학술대회 초청 등에는 모두 “NO”를 외쳤지만, “74세의 나이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다”면서 ‘BTS 학술대회’ 기조연설 초청만큼은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14일~16일까지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제3회 BTS 국제 학술대회’는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현상을 연구하는 행사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휴머니티와의 조우’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1회와 2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열렸고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렸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김영대 음악평론가, 안병진 경희대 교수, 농인으로 과거 서울 콘서트에 참가했던 방탄소년단 팬 안정선 씨 등이 연사로 나섰다.

코엘료는 이날 특별 대담 영상을 통해 “BTS는 아무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며 “나는 BTS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TS 노래를 듣게 되자 멈출 수 없었다. 너무 좋아하게 됐다. 그들의 콘서트 DVD를 수차례 돌려봤다”며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군무를 자신의 책 ‘연금술사’에 나오는 종교의식과 관련한 ‘성스러운 춤’에 비견하며 호평했다.

코엘료는 “BTS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상상할 수 없다. 춤 연습 등 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 이면의 힘든 과정은 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BTS는 마치 텅 빈 바닷가 같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끼리, 운동하고 싶은 사람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끼리 (방탄소년단의 이름 아래)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엘료는 한국과 브라질 아미 두 명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초대해 방탄소년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쓰기는 정말 외로운 작업”이라며 “아미들과 협업할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얼마든지 협업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J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